

전국 |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권기금사업 참여 시니어 대상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

입력 2024-05-20 13:10:51



사진|평창군청

[스포츠서울 | 김기원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지난 17일과 20일, 봉평면 봉산서재 일원과 평창읍 남산정 일원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총 53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처리의 올바른 방법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종량제봉투의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을 통해 폐기물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진|평창군청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을 통해 시니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환경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모든 구성원이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